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09-27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09-27
2020년 09월 27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101127515](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101127515)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년 09월 27일

차례

1. [명운을걸었으면' 진짜로' 걸어주길]	3
2. [위로부터의차별규제가아닌아래로부터의차별타파를]	3
3. [이런다고하나가되지않을것이다]	4
4. [최소한죽음은평등해야하지않은가]	5

1. [명운을걸었으면' 진짜로' 걸어주길]

더불어민주당대표이낙연씨가개천절집회에대해서경찰의명운을걸고공권력이살아있다는것을알려달라고'준엄한명령'을내렸다. 개천절집회가일어나게된다면코로나-19 사태의방역에있어서구멍이뚫릴가능성이높다는이유였다.

경찰의명운을걸고공권력이살아있다는것을보여달라. 이러한말을우리는몇번들어왔다. 과거여러시위들을진압할때, 버닝썬사태에서수사를할때등. 경찰그스스로가, 아니면그들을통제하고지배하는국가권력은경찰의명운을건다는말을수차례해왔다.

개천절집회. 물론거진백색테러와같은형태이다. 그들이할이야기는충분히예상이간다. 종북, 빨갱이, 사회주의자, 친중, '자유민주주의' 등. 수많은극우적언행과파쇼적행태가오갈것은충분히예상할수있다. 그러나국가권력과경찰의그준엄한공권력이란것이그들을진압하고그들의시위를이래라저래라할당위가있는것인가?

그들국가권력은인민의힘으로파시스트들을분쇄하고제재할힘과사고방식을어떻게든억제하면서, 어떻게든공권력의준엄함과그신성함에정당성을부여하고있다. 그들국가권력은방역파시즘에의거한수많은일들을하나둘씩확대해나가며국가이익, 국가권력의수호를위해인민의자유를억압할명분을이렇게핑계를대가며하나둘만들어가고있다.

아, 그위대한이름공권력, 경찰. 당신들이진정으로이번개천절시위에명운을걸고이번개천절시위에모든것을걸었다면, 파쇼세력이집회를강행한경우 스스로해체되는모습을보여주기를바란다. 당신들이약속하고당신들이선언한바이다. 언제까지추하게물고늘어질텐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20947001&code=910402&nv=stand&utm_source=na]

2. [위로부터의차별규제가아닌아래로부터의차별타파를]

차별금지법이발의이후로격론을이어가는가운데서울퀴어문화축제가저번금요일부터진행중이다. 불과수십년전좌파집회에서조차내쫓겼던현실과비교하여나아졌다고보는시각도있으나한국사회에서성소수자에대한심각한차별은여전히현재진행형이다. 성소수자들은이성애자부부라면누릴수있는사회보장이나보호권리를박탈당하는등제도적차별은물론이며사회적으로또한 2020년에들어서도여전히남아있는혐오와차별문화에의해고통받고있다. 육군의성소

수사색출은정부기관의보수성과야만성을여실히보여주었고트랜스젠더에대한 병적인공포감을보였던속대입학거부사태는세대를불문하고, 심지어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내걸고서도성소수자에대한혐오가존재할수있음을보여주었다. 이처럼성소수자에겐견딜수없는현실이우리앞에현존한다.

이런상황속에서차별금지법입법에걸어지고있는희망은이해되지만차별금지법에과한기대를걸고이자체를목적으로삼아서는안될것이다. 성소수자해방의수단으로서, 정부라는외적권위를이용하고자한다면그전에반대로이권위가이전부터현재까지성적지향의자유를부정하고억압하는데사용되어온도구임을인식해야한다. 누군가의자유를부정할권위는언제든지자유적이될수있음을간과해선안되는것이다. 결국의회를 통한성해방은불가능하다. 중요한것은사람들의의식이다. 그저혐오자들의입을막는다고해서사회의의식이바뀌고성소수자들을온전히받아들일수있게될까. 법안이입법된다것은위로부터의변화일뿐사람의마음을바꿀수는없기에사회기저에 깔려있는혐오의식은바뀌지않는다.

중요한것은우리자신과주변, 사회의의식의변화를성취하는것이다. 우리가법이아닌우리의삶과생활속에서진실로해방된의식을가지고살아간다면, 개인이차별을타파하고자행동에서실천하며우리사회가이를위한연대의식으로단결했을때는저위의가장억압적인정부와법안조차도해방된의식의파도속에서는무용지물일것이다. 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30 주년을맞아서여전히차별은공공연한가운데우리가진실한성소수자해방을이루고자한다면가장먼저의식의변혁을, 사회혁명을성취해야한다.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289.html

3. [이런다고하나가되지않을것이다]

지난 24 일, BBC 는중국이티베트지역에서수십만명을대상으로' 군대식의교육훈련' 을강요하고있다는내용의조사결과가나왔다고보도했다. 아나키스트연대가꾸준히비판해온중국의소수민족말살정책의목록에도하나의사례를추가해야만하는가싶어우울감을감출길이없다.

물론중국은이것이티베트지역의진보및발전을위한것이라이야기하고있으나보고서에는' 업무규율, 중국어, 업무윤리' 등으로구성된이프로그램의교과목은' 일을할수없고하고싶지않고, 할엄두를내지못하는태도를바꾸는데목적' 이있다고발표했다. 더나아가' 게으른사람들을제거하기위한효과적인대책마련' 이라는내용도포함되어있는데이는마치자본주의가태동하던시기의상황을떠올리게하는대목이다.

왜다른이들이살아가는공간을힘으로빼앗아놓고그들에게그들이원하는방식이아닌방식의일하기를강요하는가? 이것이중국의' 공산당' 이정녕희망하는일인가? 공산당이전제군주들의구빈법과동일한방식으로인민들을강제노동하게만드는것을찬성하고획책하고있는것이라면, 그런공산당따위사라져마땅하지않겠는가.

중국공산당은지금당장이러한말도안되는시도를중단하고그들이직접그들이원하는방식으로살아갈수있게그들을억압하는일을그만두어야할것이다. 이러한만행을저질러온이들의결말은늘한결같았다. FREE HONGKONG, FREE TIBET, FREE UYGHUR 다, 더러운파쇼쓰레기들이아.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966>

4. [최소한죽음은평등해야하지않은가]

중대본이추석연휴중코로나-19 확산을위한특별방역대책을내놓았다. 다른것들은그러려니하다가질겁한것이있었다. “집에계속해서 5~7 일동안머무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울수있어, 민간시설보다더엄격하게방역수칙을준수할수있는국공립시설을개방”하신단다. 하나만묻고싶다. 그러니까, 다죽을수없으니국공립시설에서일하는대민노동자들만영웅적으로죽으라는뜻인가.

나랏돈을받으며일하니이럴때는위험을감수하라고말할수도있겠지만, 그나랏돈도평등하게주지않는다. 비정규직의명절상여금은, 정규직공무원의 5 분의 1 밖에되지않는다. 그리고대민업무를하는것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정부가앞장서죽으라고내미는것은, 비정규직 (공무직) 노동자들이다.

인천국제공항의비정규직공무직전환이그토록불공정하다고말하던공정이들과정치꾼들에게묻는다. 그러니까, 명절상여금 5 분의 1 을받는비정규노동자들이, 전인민을대표하여, 앞장서죽는것이당신들의공정인가.

삶에서불평등할수는있어도, 죽음에서까지불평등을조장하지는말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63706.htm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929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707>